

16세기 국어 부정문 연구

박 형 우*

〈목 차〉

1. 서론
2. 16세기 국어 부정문의 특징
 - 2.1 부정문 유형의 변화
 - 2.2 유형별 부정문 비율의 변화
 - 2.3 서술어의 형태론적 특징에 따른 유형별 부정문 비율의 변화
3. 결론

【요 약】

본고는 16세기의 국어 자료를 중심으로 16세기 국어 부정문의 특징을 구명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는 16세기의 국어 자료에서 부정문을 분류하여 유형과 그 비율, 서술어의 형태론적 특징에 따라 정밀하게 살펴보고, 그 변화의 양상과 원인에 대해서 살펴본다.

전반적으로 중세국어의 부정문이 갖는 특징 중에서 16세기 국어 부정문이 갖는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세국어 부정문의 유형과 관련하여 16세기 부정문의 유형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세부적인 유형에서는 서로 공통적으로 보이는 유형만큼이나 차이를 보이는 유형도 많다.

* 한국교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둘째, 중세국어에서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니’ 부정문의 경우 초기에서 중기, 후기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장형부정문화가 진행됨과 달리, ‘몬’ 부정문의 경우에는 이미 초기에서 상당 부분의 장형부정문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러한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은 문어 부정문에 한정된 것이었다. 구어의 영향을 받은 부정문 자료에서는 이러한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 그리고 『順天金氏簡札』은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을 따르지 않은 구어 중심의 국어 자료들이다. 지역(경상도) 방언의 영향을 받은 『二倫行實圖』, 『呂氏鄉約』, 『正俗諺解』, 『七大萬法』 등의 문헌에서도 장형부정문화의 정도가 약화되어 나타난다.

넷째, 장형부정문화와 관련하여 서술어의 형태론적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을 유발한 것은 한자어 어근을 갖는 파생 용언(한자어 어근+ㅎ다)으로 보인다. 한자어의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많은 한자어가 서술어로 쓰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장형부정문이 단형부정문보다 더 많이 쓰이게 되었다.

1. 서론

15세기와 16세기는 여러 학자들의 국어사 시대 구분에서 거의 대부분 중세국어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시대 구분 속에서 15세기와 16세기에 대한 국어사 연구는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중세국어라는 시기의 전형적 특징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술될 뿐, 그 개별적 특징에 대해서는 언급되는 면이 대단히 적다. 특히 16세기의 경우에는 이전의 전형적인 중세국어의 특징이 일부 동요를 보이기는 하지만 별다른 특징의 제시 없이 기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음운, 문법, 어휘 등에 나타나는 언어의 변화는 일정한 시기를 중심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문법의 변화라 하더라도 그 하부 항목이 일정한 시기에 동시에 변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보다 정밀한 국어사의 변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보다 세분화된 시기별 연구가 필요하다. 부정문의 변화 양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16세기 국어 부정문의 특징을 구명하고자 한다.

중세국어 내에서 16세기 국어 부정문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16세기 부정법을 중심으로 설명한 송재목(1990)을 비롯하여, 16세기 부정문의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한 이태욱(2001)과 통사론과 의미론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설명한 허재영(2002)을 들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16세기 국어 자료에 나타난 부정문의 특징을 유형과 그 비율, 서술어의 형태론적 특징에 따라 정밀하게 살피고, 그 변화의 양상과 원인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는 16세기의 여러 한글 자료를 통해 ‘아니’ 부정문과 ‘몰’ 부정문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확인한다. 다만 16세기의 모든 국어 자료를 확인하지는 못 하였다. 16세기 문헌 중 일부는 통계화 과정에서 빠져 있으며, ‘아니다’ 부정문²⁾과 ‘말다’ 부정문의 경우에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또한 자료 중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명백한 오각이나 오

2) ‘아니다’ 부정문의 유형 분류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김석득(1992)에서는 부정 잡음씨로 보아 단형부정문이나 장형부정문과 따로 분류하였고, 고영근·남기심(1993)에서는 ‘안’ 부정문의 일부로 처리하였으나, 역시 단형부정문이나 장형부정문의 일부로 처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서정수(1996)에서는 특수 부정법으로 보아 따로 분류했으나 ‘아니다’를 ‘아니 이다’로 분석하여 설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학교 문법에서도 재고해 볼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시정곤(1993), 김의수(2003)에서도 ‘아니+이다’로 분석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아니다’ 부정문도 ‘아니’가 ‘-이다’에 선행하는 일종의 단형부정문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논란이 있기에 본고에서는 일단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기로 보이는 자료 또한 그 논의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16세기 국어 부정문의 특징

일반적으로 부정문의 경우에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에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³⁾ 그러나 중세국어와 현대국어 사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같은 중세국어의 시기로 파악하는 15세기와 16세기 사이에도 부정문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를 중심으로 16세기 부정문의 일반적인 특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1. 부정문 유형의 변화

16세기 부정문의 변화를 우선 15세기 부정문의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세기에도 일반적인 부정문의 유형 분류라 할 수 있는 단형부정문과 장형부정문에 따라서 서술어의 품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그 예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 (가) 내 他日에 일쪽 學問을 아니 호고 馬를 馳호며 (孟子諺解 5, 6a)
 - (나) 거상호여 삼년늘 자리에 아니 가더라 (二倫行實圖, 18a)
 - (다) 내 이리 아니 어엿브고 (順天金氏簡札)
 - (라) 元然호 佛性이 아니 잇논 짜히 업스니라 (七大萬法, 8b)
 - (마) 내 호디 아니 호노라 (中庸諺解, 7a)
 - (바) 비록 道ㅣ 업슬디라도 그 집을 일티 아니 호고 (孝經諺解, 24a)
 - (사) 또 현인피 붓드럽디 아니 호라 (發心修行章, 32a)
 - (아) 말이 업서 時에 爭호리 잇디 아니타 호니 (中庸諺解, 54a)

(1가~아)는 모두 ‘아니’ 부정문의 예이다. 그 중에서 (1가~라)까지

3)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고영근(2004)에 논의되어 있다.

는 단형부정문의 예로서 (1가)는 그 서술어가 ‘하다’라는 동사에 쓰인 예이고, (1나)는 ‘가다’라는 동사에서 단형부정문이 쓰인 예이다. (1다)는 ‘어엿브다’라는 형용사와 단형부정문을 이루었고, (1라)는 일종의 이중부정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니’가 소위 ‘존재사’인 ‘잇다’와 결합하여 단형부정문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1라)의 경우에는 ‘없다’를 이용한 부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부정 부사 ‘아니’를 이용하여 부정문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1마~아)는 ‘아니’가 쓰인 장형부정문의 예인데, (1마)는 ‘하다’에 다시 ‘-디 아니하다’가 쓰여 장형 부정문을 이루고 있으며, (1바)에서는 동사 ‘없다’가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예이다. (1사)에서는 ‘붓그럽다’라는 형용사가 장형부정문을 형성하고 있으며, (1아)에서는 ‘존재사’인 ‘잇다’에 ‘-디 아니하다’가 쓰여 장형부정문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우선 16세기의 ‘아니’ 부정문은 문장 서술어의 품사적 특성에 관련 없이 모두 단형부정문과 장형부정문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몰’ 부정문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2. (가) 또 그리 몰 하거든 너희 다 그저 예서 기들우라 (飜譯老乞大 下, 18b)

(나) 어버이를 아춤나죄 몰 보애라 하야 (續三綱行實圖 孝, 6a)

(다) 게 가 방이 뻔 죽헌디 몰 뻔 죽헌디 보고사 내 하 마를 니르고 저 하노라 (飜譯老乞大 上, 67b)

(라) 시절리 어즈러워 새도 헌디 몰 잇곤 하몰며 사름미여 (二倫行實圖, 26a)

(마) 고로 어소 어를 힘써 하디 몰하느니 (重刊 警民編, 13a)

(바) 열두 량 은곳 아니면 그를 사디 몰하리로다 (飜譯朴通事 上, 14b ~ 15a)

(사) 구하라 하샤디 周 족디 몰하가 (簡易辟瘟方 序, 2a)

(아) 사름미 하늘 짜 이쇼말 모르면 하늘 짜 스이에 잇디 몰하리며 (正俗諺解, 2b)

‘몰’ 부정문의 경우도 ‘아니’ 부정문과 마찬가지로 문장 서술어의 품사에 관계 없이 다양한 예가 나타난다. (2가~라)는 모두 단형부정문의 예인데, (2가)는 ‘흐다’가 부정문의 서술어로 쓰이고 있으며 (2나)는 ‘보다’라는 동사가 단형부정문을 이룬 예이다. (2다)는 ‘뺨 즉흐다’가 서술어로 쓰인 예문인데 ‘즉흐다’를 보조 형용사로 보면⁴⁾ 형용사가 ‘몰’ 단형부정문을 이룬 예라 할 수 있고, (2라)는 존재사 ‘잇다’가 단형부정문을 이룬 예이다. 또한 (2마~아)는 장형부정문의 예로 (2마)는 서술어가 동사인 ‘흐다’가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이고, (2바)는 역시 동사 ‘사다’가 장형부정문을 이루고 있다. 또한 (2사)는 한자어 ‘足흐다’가 형용사 서술어로 장형부정문을 이루고 있고, (2아)에서는 존재사 ‘잇다’가 장형부정문을 이루고 있는 예이다. 다만 ‘아니’ 부정문과 비교해 보면, 형용사가 쓰인 (2다)와 존재사가 쓰인 (2라) 같은 단형부정문, 역시 형용사와 존재사가 쓰인 (2사), (2아)의 장형부정문의 수가 ‘몰’ 부정문에서는 매우 적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특히 형용사의 ‘몰’ 부정문은 단형과 장형에서 (2다)와 (2사)를 포함한 몇 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몰’이라는 부정 부사의 의미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부정문 형성에서 서술어의 품사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몇몇 유형의 예가 아주 적게 나타나는 것은 16세기 부정문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5세기의 부정문 역시 이러한 양상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서술어의 품사적 특성과 부정문의 유형은 15세기와 16세기의 부정문뿐만 아니라 현대국어의 부정문과 비교하여 볼 때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술어의 품사적 특성과 관련한 부정문의 유형은 16세기의 부정문에

4) 국어사자료연구회(1995:321)에서는 이에 대하여 ‘뺨- + -엄즉(접사) + 흐- + -디(연결)’로 분석하고 품사를 동사로 파악하고 있으나, ‘-엄’만을 명사 파생접미사로 파악하고 ‘즉하다’를 보조형용사로 보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활용 양상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동사로 보기보다는 형용사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서 별다른 것이 없으나 유형 자체를 보다 세분화 하여 살펴보면 일정한 변화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태욱(2001)에서는 부정문의 유형을 자세하게 분류하면서, ‘아니’ 부정문의 경우 15세기의 문헌에서만 나타나는 20가지, 16세기의 문헌에서만 나타나는 34가지의 부정문 유형을 밝히고 있다. 또한 ‘몰’ 부정문의 경우에는 15세기의 문헌에서만 나타나는 부정문의 유형이 18가지이고, 16세기의 문헌에서만 나타나는 유형을 14가지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15세기와 16세기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부정문의 유형은 ‘아니’ 부정문의 경우 36가지, ‘몰’ 부정문의 경우 29가지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특정 유형의 부정문 중 16세기의 문헌에만 나타나는 것을 일부 보이면 다음과 같다.

3. (가) 어간+저 아니호 : 구의나깃 은 닛량을 별로 내어 프르져 아니호
논 사람 주위 쓰게 호야 (翻譯老乞大 下, 17a)
- (나) 고유어 어근+웃 아니호 : 그리웃 아니호면 반드시 사롬을 주기느
니라 (救荒撮要, 11a)
- (다) 목적어 호+게 아니호 : 시러곰 호여곰 글지이롤 호게 아니홀디
니라 (小學諺解 5, 6a)
- (라) 어근+어 아니호 : 혼품 니천도 갑포를 즐겨 아니호는다 (翻譯朴
通事, 34b)
- (마) 한자어근 아니호+게 호 : 답단 병 아니케 호느니라 (分門瘟疫易
解方, 3b)
- (바) 몰 어간+게 되- : 곽히야 몰 쓰게 되면 (順天金氏簡札)
- (사) 목적어 부사 몰호 : 그러호므로 은혜롤 믇춤내 몰호느니 (翻譯小
學 7, 44b)
- (아) 한자어근+롭+디 몰호 : 건 짜해 빅성이 지조롭디 몰홈온 음탕홈
이오 (小學諺解 4, 45a)

이러한 결과는 부정문의 유형을 아주 세분화 해서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의 경우에는 15세기에

는 나타나지만 16세기에는 나타나지 않거나, 15세기에는 없다가 16세기에만 등장하는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형 자체가 쓰일 수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쓰일 수 없다가보다는 쓰일 가능성은 있으나 문증되지 않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경우에 따라서 문증되지 않을 뿐 유형 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 곤란하여, 이렇게 단순히 유형을 분류하고 비교함으로써 15세기와 16세기의 차이점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다.⁵⁾ 그러나 비교적 자료가 많고 그 성격이 다양한 여러 자료들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비교의 상당수는 부정문 자체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보다 정밀한 유형 분류 기준에 의하면, 15세기와 비교하여 16세기 부정문 유형에는 일정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유형별 부정문 비율의 변화

부정문 유형의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특정 유형의 부정문 비율이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서면서, 그리고 16세기 자체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다. 앞에서 밝힌 이태욱(2001)의 경우에는 유형을 상세하게 분류하여 파악하였지만 이러한 유형별 부정문의 비율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유형을 상세화 해서는 그 비교가 어렵다. 기존의 연구자들이 분류하는 장형부정문과 단형부정문을 중심으로 이러한 부정문의 비율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다.

5) 이태욱(2001:259~275)의 이러한 유형 중 일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세기에만 나타나는 부정문 유형의 ‘2. 아니 파생부사 너기-’, ‘파생부사 묻 너기-’와 16세기에만 나타나는 유형 ‘부사 아니 너기-’, ‘파생부사 너기+디 묻ㅎ’을 들고 있는데 ‘너기-’라는 특정 단어와의 결합을 유형화 할 수 있는가는 의심스럽다. 분류 중에서 관용어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특정 어휘와의 관계로 유형을 잡은 예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관련 연구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아주 높아진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16세기 자체만 보더라도 분명한데, 16세기 초기에 간행된 『翻譯小學』과 16세기 후반에 간행된 『小學諺解』에 나타나는 부정문 변화가 좋은 예가 된다. 이 두 문헌은 모두 『小學』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 두 문헌에 나타나는 장형과 단형부정문 비율에 차이를 보인다.

4. (가) 아니 ㄹㄹ쳐도 어디느닌 聖人 아녀 엇더니며 (翻譯小學 6, 28~29)
 → ㄹㄹ치디 아니호야셔 어디롭이 聖人 아니오 므서시며 (小學諺解 5, 27)
- (나) 혼자 부귀를 누리고 아스물 어엿비 아니 너기면 (翻譯小學 7, 49)
 → 만일 혼자 富貴를 누리고 권당을 근심티 아니호면 (小學諺解 5, 80)
- (다) 늑미 몰 가지논 므슴을 가져 이시며 (翻譯小學 9, 73~74)
 → 사람의 能히 딕키디 몰호논 바를 딕키며 (小學諺解 6, 68)
- (라) 고기 몰 먹게 흐더시니 내 닛디 몰호노라 (翻譯小學 9, 103)
 → 고기 먹음을 허티 아니호더시니 내 敢히 닛디 몰호노라 (小學諺解 6, 96)
- (마) 그 모를 아롭답게 흐면 엇디 넷 사르미게 몰 미츠리오 (翻譯小學 8, 24)
 → 그 몸을 아롭답게 흐면 엇디 넷사롭의게 可히 밋디 몰호리오 (小學諺解 5, 103)

(4가~마)의 예문을 보면, 『翻譯小學』에서는 단형부정문으로 나타났던 상당수의 예들이 7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小學』을 다시 우리말로 바꾼 『小學諺解』에서는 대부분 장형부정문으로 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라) 예문의 경우에는 ‘몰 먹다’라는 단형의 ‘몰’ 부정문이 ‘먹음을 허티 아니호다’라는 ‘아니’의 장형부정문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翻譯小學』과 『小學諺解』 중 같은 부분을 번역한 자료만을 비교하여⁶⁾ 단형부정문과 장형부정문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자료 유형	翻譯小學(1518)	小學諺解(1588)
‘아니’ 단형부정문	85 (24.8%)	47 (13.6%)
‘아니’ 장형부정문	258 (75.2%)	298 (86.4%)
‘몰’ 단형부정문	32 (19.8%)	12 (6.8%)
‘몰’ 장형부정문	130 (80.2%)	164 (93.2%)
전체 단형부정문	117 (23.2%)	59 (11.3%)
전체 장형부정문	388 (76.8)	462 (88.7%)
합계	505	521

같은 내용에 대한 번역의 시차로 인해 단형부정문이 장형부정문으로 바뀐 것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16세기의 국어 자료에서는 대부분 단형부정문보다는 장형부정문이 보다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문헌별 부정문 유형의 비율을 아래 표에서 살펴보면 그 유형의 변화를 보다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⁷⁾

-
- 6) 『小學諺解』은 전체 6권이 모두 전하나 『翻譯小學』은 최근에 발견된 권3과 권4가 일부 낙장이며, 권1, 권2, 권5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小學』의 내편은 비교가 불가능하여, 『翻譯小學』 권6~10과 『小學諺解』 권5, 6의 부정문을 비교한 것이다.
- 7) 부정문 유형별 자료는 ‘21세기 세종 계획’에서 구축한 국어사 자료 말뭉치와 일부 영인본 자료를 이용하였고, 말뭉치 자료의 검색에는 unicon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 일부 자료 중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영인본 원문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을 했다. 참고로 ‘21세기 세종 계획’의 원시 말뭉치 자료 중 국어사 자료 말뭉치의 경우에는 잘못 입력된 내용이 일부 있어서 연구 자료로 사용할 경우 확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도	자료	아니 부정문	몰 부정문
		단형 : 장형	단형 : 장형
1514	續三綱行實圖	23.9 : 76.1	45.5 : 54.5
1517 이전	翻譯老乞大	34.0 : 66.0	25.6 : 74.4
1517 이전	翻譯朴通事	33.3 : 66.7	29.4 : 70.6
1518	翻譯小學	24.8 : 75.2	19.8 : 80.2
1518?	二倫行實圖	37.9 : 62.1	65.6 : 34.4
1518	呂氏鄉約 존경각본	27.3 : 72.7	38.9 : 61.1
1518?	正俗諺解	28.9 : 71.1	57.9 : 42.1
1525	簡易辟瘟方	25.0 : 75.0	0.0 : 100.0
1541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0.0 : 100.0	0.0 : 100.0
1542	分門瘟疫易解方	11.1 : 88.9	25.0 : 75.0
1554	救荒撮要	25.0 : 75.0	66.7 : 33.3
1569	禪家龜鑑諺解	12.4 : 87.6	6.4 : 93.6
1569	七大萬法	21.3 : 78.7	47.1 : 52.9
156?	呂氏鄉約 화산문고본	17.8 : 82.2	38.9 : 61.1
1565~1575	順天金氏簡札	73.1 : 26.9	83.2 : 16.8
1577	誠初心學人文	12.7 : 87.3	11.1 : 88.9
1577	發心修行章	10.5 : 89.5	7.7 : 92.3
1579	重刊 警民編	26.9 : 73.1	0.0 : 100.0
1588	小學諺解	14.2 : 85.8	10.8 : 89.2
1590	論語諺解	5.6 : 94.4	2.9 : 97.1
1590	孟子諺解	4.1 : 95.9	3.3 : 96.7
1590	大學諺解	3.0 : 97.0	9.7 : 90.3
1590	中庸諺解	2.0 : 98.0	0.0 : 100.0
1590	孝經諺解	18.9 : 81.1	0.0 : 100.0

우선 16세기 자료에 따라 장형부정문과 단형부정문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1530년대 이전의 문헌에서는 ‘아니’ 부정문의 경우 단형부정문의 비율이 20~30% 정도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그 이후 1570년대까지는 주로 10~20%로 단형부정문의 비율이 줄어든다. 그리고 1580년대 이후 후기로 보면 거의 10% 이하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몰’ 부정문의 경우에는 ‘아니’ 부정문과 비교하여 초반, 중반, 후반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후대로 올수록 역시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장형부정문

화의 경향은 유교 관련 자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사서언해(四書諺解)의 경우에는 단형부정문의 비율이 ‘아니’ 부정문뿐만 아니라 ‘못’ 부정문에서도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順天金氏簡札』의 경우에는 오히려 ‘아니’ 부정문과 ‘못’ 부정문 모두에서 단형부정문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16세기 초기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의 경우에는 다른 문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형부정문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헌의 유형별 부정문 비율이 일반적인 다른 문헌의 비율과 차이를 보이는 원인에 대하여 우선 『順天金氏簡札』의 경우 ‘간찰’, 즉 편지글의 특징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翻譯老乞大』나 『翻譯朴通事』의 경우는 중국어 학습서로서 회화체로 쓰인 것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간찰과 역학서는 모두 문어(文語)보다는 구어(口語)의 영향이 더 강한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구어적 영향이 강한 문헌 자료는 16세기의 일반적인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에서 일정한 예외적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16세기의 장형부정문화는 구어보다는 문어에서 보다 강력하게 진행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못’ 부정문의 경우에는 『續三綱行實圖』, 『二倫行實圖』, 『呂氏鄉約 존경각본』, 『正俗諺解』, 『七大萬法』의 자료에서 단형부정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⁸⁾ 이 중에서 『續三綱行實圖』의 경우에는 비록 16세기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15세기에 간행된 『三綱行實圖』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진정한 16세기의 자료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二倫行實圖』와 『正俗諺解』는 모두 ‘김안국’과 관련된 자료로서, 경상도 방언의 영향을 받은 자료로 볼 수 있다. 또한 『七大萬

8) 이러한 자료 외에도 ‘못’ 부정문은 ‘救荒撮要’에서 단형부정문이 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내고는 있지만 전체 ‘못’ 부정문의 수가 3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순히 퍼센트만으로 단형부정문의 비율이 높다고 보기가 곤란하여 여기에서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法』의 경우도 저자 미상의 불서(佛書)로서, 경상도 풍기의 회방사에서 간행된 자료로 역시 경상도 방언의 영향을 받은 자료로 볼 수 있다.⁹⁾ 결국 예외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단형의 ‘몯’ 부정문은 15세기의 영향이거나 경상도 방언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에 한정하여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몇몇 문헌을 제외하면 16세기는 장형부정문화가 문어 중심의 자료에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은 ‘아니’ 부정문에서보다는 ‘몯’ 부정문에서 더 강력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3. 서술어의 형태론적 특징에 따른 유형별 부정문 비율의 변화

16세기 부정문의 특징으로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부정문에 쓰인 서술어의 형태론적 특징과 부정문 유형과의 관계이다.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16세기 부정문의 큰 특징 중의 하나를 장형부정문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장형부정문화는 서술어가 특정 형태론적 특징을 갖는 경우에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보면 형태론적 특징에 따라서 단형부정문 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형부정문의 형성 제약과 관련하여 단형부정문을 서술어의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5. (ㄱ) 다시 아니 머거셔 도허리라 (簡易辟瘟方, 16b)

(나) 얼굴 가름에 이에 아니완출호며 해필러 흠을 멀이호며 (小學諺解 3, 6a)

(ㄷ) 내 모미사 내 아니 간스호라 (順天金氏簡札)

(ㄹ) 고히며 이브로 김곳 아니 나들면 (七大萬法, 6b)

(ㅁ) 아홉 히를 줌줍호야 말 아니 호시니 (誠初心學人文, 56b)

9) 이상의 자료에 대한 상세한 해제는 안병희(1992)를 참고할 수 있다.

(배) 혼나혼 ㄹ론 덕과 업과로 서ㄹ 권 아니호미오 (존경각본 呂氏鄉約, 7b)

(5가)는 단일어가 서술어인 문장에 ‘아니’의 단형부정문이 쓰인 예문이다. (5나)는 분석에 문제가 있으나 ‘아니’를 따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고유어 어근에 ‘-ㅎ다’가 결합한 파생어에 단형부정문이 쓰인 예로 볼 수 있다.¹⁰⁾ (5다)는 한자어 어근에 ‘-ㅎ다’가 결합한 파생어가 단형부정문을 이룬 예이고, (5라)는 합성어 ‘나들다’가 단형부정문을 이루고 있는 예이다. 그런데 (5나~라)에 해당하는 예문의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5나)의 예문의 경우 (5마)와 같은 형태로 부정 부사 ‘아니’가 중간에 끼어드는 예문이 종종 발견되는데 이러한 예문도 그 수가 많지 않다. 또한 한자어 어근을 갖는 (5다)의 경우도 (5바)와 같은 용례로 쓰이기도 하지만 역시 그 예의 수는 많지 않다.

‘몰’ 부정문의 경우도 이 경우와 유사하다. 단형부정문의 예를 서술어의 형태론적 특징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가) ㄴ이 이긔며 ㄴ이 몰 이긔니오 (翻譯老乞大 下, 37a)

(나) 基約을 一證호야놀 몰 먼홀 줄을 알고 (續三綱行實圖 烈, 26b)

(다) 이 몰 드라오니가 다 일즉 묻디 아니호야 잇더니 (翻譯老乞大 上, 15b)

(라) 므르져 아니 호는 사름 주워 ㅼ게 호야도 잡말 몰 흐리니 (翻譯老乞大 下, 17a)

(마) 사ㄹ미 運動 몰 호고 (七大萬法, 6b)

10) ‘아니완출ㅎ다’를 하나의 단어로 보는 경우도 있다. ‘小學’의 원문을 보면 ‘暴’를 우리말로 쓴 것으로 보인다(動容貌斯遠暴慢矣). 劉昌淳의 李朝語辭典에서는 이에 대해 “난포하다”로 풀이하고 있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휼칠하지 못하다. 사납다. 나쁘다. 포악하다.”로 풀이하고 있다. ‘완출ㅎ다’가 독립된 단어로 쓰이지 않아서 ‘아니’가 부정 부사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그 의미가 부정과 관련된다고 할 때 일정한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다.

(6가)는 고유어의 단일어가 서술어로 단형부정문을 이루고 있으며, (6나)는 한자어 어근을 갖는 파생어가 서술어로 쓰이고 있는데, 그 앞에 부정 부사 ‘몰’이 쓰여 단형부정문을 이루고 있다. (6다)는 ‘드라오다’라는 합성어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이 단형부정문을 이루고 있는 예이다. ‘몰’ 부정문의 경우에도 서술어가 한자어 어근을 갖는 경우 (6나)와 같은 부정문보다는 (6마)와 같은 부정문을 이루는 경우가 좀더 많지만 역시 그 수는 많지 않다. 특히 ‘몰’ 부정문의 경우에는 ‘아니’ 부정문과 달리, 고유어 어근을 가진 파생어 앞에 부정 부사 ‘몰’이 쓰여 단형부정문을 이룬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고유어 어근을 갖는 서술어의 경우에는 (6라)와 같이 고유어 어근과 ‘-하다’ 사이에 부정 부사가 위치하는 예만 보인다는 점이 ‘아니’ 부정문과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부정문에서 서술어의 형태론적 특징에 따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고유어나 한자어 어근을 갖는 파생 용언이 단형부정문을 형성하는 데에 일정한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¹¹⁾ 경우에 따라서는 ‘고유어(또는 한자어) 어근+아니(또는 몰) + 하다’의 예문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그 예는 많지 않다.

사실 이렇게 고유어나 한자어의 체언 어근을 갖는 파생 용언의 단형부정문 형성 제약은 16세기 부정문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15세기에도 이러한 유형의 부정문 용례는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났었다.

7. (가) 赤心이시니 뒤 아니 스랑호스불리 (龍飛御天歌, 78)

(나) 사르미 제 므슴 體性을 삼느니 아니 迷惑호녀 (楞嚴經諺解 2, 20b)

(다) 六宮이 아니 嗟嘆호리 없더니라 (內訓 2上, 44b)

11) 실제로 합성 용언의 경우에도 단형부정문 형성에 일정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예문을 보면, 특히 통사적 합성어인 경우에는 어구인지 합성용언인지 명확하기 않은 것들이 보여서 본고에서는 이 문제는 논외로 한다. 합성 용언 여부가 의심이 되는 예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네 이를 도라 몰 보와 호노라 (順天金氏簡札)

(7가~다)는 15세기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예문들인데 실제로 그 예는 매우 적으며, 15세기의 경우에도 ‘고유어(또는 한자어) 어근+아니(또는 못) +하다’의 형식으로 더 많은 부정문의 용례가 나타나고 있다.

고유어를 어근으로 하는 파생 용언의 경우, 파생 용언 자체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용례가 적다는 것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자어 어근을 갖는 파생 용언의 경우에는 15세기와 16세기에서 한자어의 쓰임이 증가하면서 접미사 ‘-하다’와 결합하여 상당히 많은 수의 어휘가 국어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어휘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을 단형부정문화 할 수 없게 된다면 자연히 부정문 형성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형부정문 대신에 장형부정문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파생 용언이 단형부정문 대신에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예는 16세기 문헌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8. (가) 그 어버일 스랑티 아니커니 (正俗諺解, 13a)
- (나) 줌쑤코 말히디 아니하야 (誠初心學人文, 7a)
- (다) 궁흔 이리사 본디 싱각디 아니고 (順天金氏簡札)
- (라) 上을 犯함을 好티 아니하며 (論語諺解 1, 2a)
- (마) 萬鍾이면 禮義를 辨티 아니하고 受히느니 (孟子諺解 11, 26b)
- (바) 우희이서 교만티 아니하면 노파도 위디티 아니하고 (孝經諺解, 3b)

(8가)는 ‘스랑하다’가 장형부정문에 쓰인 예이고, (8나), (8다)도 역시 각각 ‘말하다’와 ‘싱각하다’가 장형부정문으로 쓰인 예인데, (8다)의 경우 접미사인 ‘-하다’에서 어간이 탈락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¹²⁾ (8라~마)는 한자어 어근에 ‘-하다’가 결합한 파생 용언이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예이다. (8라)는 ‘好하다’가 장형부정문에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12) 파생 용언에서 이러한 접미사 ‘-하다’의 생략에 대해서는 허웅(1975:464~467)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단어는 현대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라 할 수 있다. 당시 유교 경전의 학습으로 인해 사서연해에서는 이렇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 (8마) 역시 ‘辨히다’라는 1음절의 한자어 어근을 갖는 장형부정문인데 이 경우에는 현대국어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또한 (8바)에서는 ‘교만히다’와 ‘위딤흐다’가 장형부정문을 이루면서 보조적 연결어미 ‘-디’와 축약되어 ‘교만티’와 ‘위딤텔’로 나타나고 있다.

‘몰’이 쓰인 장형부정문의 상황도 ‘아니’ 부정문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9. (가) 감히 곶와 괴절티 몰히며 (小學諺解 2, 19b~20a)

(나) 趨히야 벽히니 시리곰 더블어 말히디 몰히시다 (論語諺解 4, 47b~48a)

(다) 이리호모로 아비게 스랑히디디 몰히야 (翻譯小學 9, 24a)

(라) 오래 듀티 몰히리니 (發心修行章, 34b)

(마) 道ㅣ 그 行티 몰히린더 (中庸諺解, 4a)

(바) 또 늘그시니 편안티 몰히야시니 (翻譯老乞大 上, 52a)

(9가~다)는 고유어 어근이 접미사 ‘-히다’와 결합한 파생 용언이 장형부정문에 쓰인 예들이다. 그리고 (9라~바)는 한자어 어근을 갖는 파생 용언이 장형부정문을 이루고 있는 예들이다. (9라)에서는 ‘아니’ 부정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현대국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 1음절 한자어 어근을 갖는 ‘듀(住)히다’가 장형부정문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장형부정문을 살펴보면 ‘아니’ 부정문이나 ‘몰’ 부정문에 관계 없이 고유어 어근에 ‘-히다’가 결합한 예문은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단형부정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유어 어휘가 우리 말에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자어 어근을 갖는 파생 용언의 부정문에서는 단형부정문과 달리 장형부정문의 경우에는 그 예가 매우 많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형부정문과 장형부정문에서 이러한 파생용언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 문헌 자료에 따라 비교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¹³⁾

연도	자료	'아니' 부정문						'몰' 부정문					
		단형			장형			단형			장형		
		고유어	한자어	합계	고유어	한자어	합계	고유어	한자어	합계	고유어	한자어	합계
1514	續三綱行實圖	0.0	0.0	0.0	0.0	13.0	13.0	0.0	10.0	10.0	0.0	8.3	8.3
1517 이견	翻譯老乞大	0.0	2.9	2.9	1.5	7.4	8.8	4.3	0.0	4.3	0.0	7.5	7.5
1517 이견	翻譯朴通事	0.0	0.0	0.0	0.0	2.9	2.9	0.0	0.0	0.0	0.0	0.0	0.0
1518	翻譯小學	14.3	13.1	27.4	2.3	11.2	13.6	6.3	3.1	9.4	1.5	0.8	2.3
1518?	二倫行實圖	0.0	0.0	0.0	0.0	2.8	2.8	0.0	0.0	0.0	0.0	18.2	18.2
1518	呂氏鄉約 촌경각본	16.7	41.7	58.3	3.1	31.3	34.4	0.0	14.3	14.3	0.0	36.4	36.4
1518?	正俗諺解	0.0	0.0	0.0	9.3	24.1	33.3	0.0	0.0	0.0	0.0	0.0	0.0
1525	簡易辟瘟方	0.0	0.0	0.0	0.0	55.6	55.6	0.0	0.0	0.0	0.0	25.0	25.0
1541	牛馬羊猪染疫病治 療方	0.0	0.0	0.0	0.0	50.0	50.0	0.0	0.0	0.0	0.0	33.3	33.3
1542	分門瘟疫易解方	0.0	0.0	0.0	0.0	43.8	43.8	0.0	0.0	0.0	0.0	0.0	0.0
1554	救荒撮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569	禪家龜鑑諺解	0.0	0.0	0.0	0.0	23.1	23.1	0.0	0.0	0.0	0.0	31.5	31.5
1569	七大萬法	0.0	0.0	0.0	0.0	2.7	2.7	0.0	0.0	0.0	0.0	0.0	0.0
156?	呂氏鄉約 화산문고본	0.0	0.0	0.0	8.1	27.0	35.1	0.0	0.0	0.0	0.0	36.4	36.4
1565-1575	順天金氏簡札	2.5	2.5	4.9	1.7	25.0	26.7	0.0	0.0	0.0	0.0	6.3	6.3
1577	誠初心學人文	0.0	0.0	0.0	1.8	18.2	20.0	0.0	0.0	0.0	0.0	20.8	20.8
1577	發心修行章	0.0	0.0	0.0	0.0	5.9	5.9	0.0	0.0	0.0	0.0	16.7	16.7
1579	重刊 警民編	0.0	0.0	0.0	0.0	52.6	52.6	0.0	0.0	0.0	0.0	28.6	28.6
1588	小學諺解	0.9	0.9	1.9	0.3	19.3	19.6	10.0	0.0	10.0	1.6	19.8	21.5
1590	論語諺解	0.0	4.8	4.8	0.0	80.2	80.2	0.0	0.0	0.0	0.4	58.2	58.6
1590	孟子諺解	0.0	0.0	0.0	0.7	81.6	82.4	0.0	0.0	0.0	0.0	72.6	72.6
1590	大學諺解	0.0	0.0	0.0	0.0	15.6	15.6	0.0	0.0	0.0	0.0	46.4	46.4
1590	中庸諺解	0.0	0.0	0.0	0.0	71.9	71.9	0.0	0.0	0.0	0.0	66.7	66.7
1590	孝經諺解	0.0	0.0	0.0	4.7	23.3	27.9	0.0	0.0	0.0	33.3	33.3	66.7

13) ‘아니’ 부정문이나 ‘몰’ 부정문 각각의 단형부정문이나 장형부정문 전체 중에서 고유어 어근을 갖는 단형부정문이나 장형부정문의 비율, 한자어 어근을 갖는 단형부정문과 장형부정문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백분율은 소숫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예를 들어서 ‘順天金氏簡札’의 경우 ‘아니’ 부정문 중에서 ‘고유어 어근+ㅎ다’가 ‘아니+고유어 어근+ㅎ다’나 ‘고유어 어근+아니+ㅎ다’의 형태를 갖는 부정문이 전체 단형부정문 중에서 2.5%를 차지하고, ‘한자어 어근+ㅎ다’가 ‘아니+한자어 어근+ㅎ다’나 ‘한자어 어근+아니+ㅎ다’로 나타난 예가 전체 단형부정문 중에서 2.5%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합계는 이 두 유형의 단형부정문이 전체 단형부정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9%라는 것이다.

이러한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몇몇의 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유어나 한자어 어근이 ‘-하다’와 결합한 파생 용언의 경우 장형 부정문의 형성이 매우 우세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세한 정도는 16세기의 후반기로 갈수록 더욱 더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교와 관련된 자료에서는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단형부정문에 비하여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 장형부정문 내에서도 이러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단형부정문의 경우에는 16세기 전반에 몇몇 문헌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유교 관련 문헌 자료에서 이러한 파생 용언의 장형부정문 비율이 다른 자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며, 전체 장형부정문 중에서 이러한 부정문의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특히 16세기 후반의 사서언해 등의 자료에서는 각각의 장형부정문의 예가 매우 많으며, 각 장형부정문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부정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흔히 16세기의 부정문 특징을 장형부정문화라고 할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16세기 말에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크게 증가한 것은 바로 한자어 어근을 갖는 파생 용언의 부정문이 단형부정문의 형성은 불가능하게 되어 모두 장형부정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자어 어근을 갖는 용언을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말 어휘 중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이 이와 같은 장형부정문화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16세기의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부정문을 중심으로 그 특

징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중세국어의 부정문이 갖는 특징 중에서 16세기 국어 부정문이 갖는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본고를 맺고자 한다.

첫째, 중세국어 부정문의 유형과 관련하여 16세기 부정문의 유형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국어 부정문을 부정 부사의 종류와 부정문의 길이에 따라 유형화 할 때, 16세기의 부정문 역시 이러한 유형에서 큰 변화가 없다. 또한 문장 서술어의 품사적 특징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여러 유형의 부정문 형성에 별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15세기와 16세기의 부정문에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태욱(200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부적인 유형에서는 서로 공통적으로 보이는 유형만 큼이나 차이를 보이는 유형도 많다.

둘째, 중세국어 부정문의 유형별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장형부정문화를 큰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니’ 부정문과 ‘몰’ 부정문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아니’ 부정문의 경우 초기에서 중기, 후기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장형부정문화가 진행됨과 달리, ‘몰’ 부정문의 경우에는 이미 초기에서 상당 부분의 장형부정문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아니’ 부정문보다는 ‘몰’부정문에서 먼저 일어났고, 더 빨리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이러한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나타나지 않은 자료가 16세기에 일부 존재한다. 이러한 자료는 우선 『續三綱行實圖』와 같이 15세기의 표기를 그대로 반영한 문헌과 『二倫行實圖』, 『呂氏鄉約』, 『正俗諺解』, 『七大萬法』 등과 같이 경상도 방언의 영향을 받은 문헌에서는 단형부정문의 비율이 다른 자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이보다도 중요한 것은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 그리고 『順天金氏簡札』이 장형부정문화의 예외가 된다는 점인데, 이는 16세기의 장형부정문화는 일반적으로 문어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구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

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넷째, 장형부정문화와 관련하여 서술어의 형태론적 특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을 유발한 것은 한자어 어근을 갖는 파생 용언(한자어 어근+흥다)으로 보인다. 한자어의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많은 한자어가 서술어로 쓰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한자어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은 부정문을 형성할 경우에 단형부정문은 형성하기 어렵고, 주로 장형부정문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16세기의 장형부정문 중 이러한 한자어근을 갖는 장형부정문의 비율은 장형부정문 내부적으로는 물론이고, 전체 부정문 유형에서도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한자어 어휘를 많이 사용하는 사서언해 등의 유교 관련 자료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결국 한자어의 사용이 16세기 장형부정문화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장형부정문화는 방언과 구어 반영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향의 원인은 한자어에 있었다는 것이다. 앞에서 열거한 지역 방언과 구어를 반영한 문헌 자료에서도 한자어 어근을 갖는 유형의 단형부정문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주제어 : 16세기 부정문(negative sentences in the 16th century), 장형부정문화(the tendency of long forms in negative sentences), 단형부정문 형성 제약(the restrictions on forming short forms in negative sentences), 문어의 부정문(negative sentences in the written language), 구어의 부정문(negative sentences in the spoken language)

참고문헌

- 고영근, 『개정판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2004.
- 고영근·남기심,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93.
- 국어사자료연구회 편역, 『譯註 翻譯老乞大』, 태학사, 1995.
- 김동소,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1998.
- 김무림,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2004.
- 김석득, 『우리말 형태론』, 탑출판사, 1992.
- 김의수, 「국어의 격과 의미역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03.
- 박형우,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에 나타난 부정문의 비교 연구」, 『韓民族語文』 44, 韓民族語文學會, 2004, pp. 5-28.
- 서정수, 『수정 증보판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6.
- 송재목, 「16세기 언해자료에 나타난 부정법의 특성 - ‘아니’를 중심으로」, 『언어연구』 2,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연구회, 1990, pp 25-35.
- 시정곤, 「국어의 단어 형성 원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3.
- 안병희, 『國語史 資料 研究』, 文學과知性社, 1992.
- 이태욱, 16세기 국어 부정법 연구, 보고서, 2001.
- 허웅, 우리 옛말본 - 15세기국어형태론, 샘문화사, 1975.
- 허재영, 부정문의 통시적 연구, 2002, 역락.

<Abstract>

A Study on Negative Sentences in the 16th century

Park, Hyeong-W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et characteristics about Korean negative sentences in the 16th century Korean literatures. The method of this paper is to classify and collect statistics of negative sentences in the 16th century Korean literatures, then to reclassify according to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redicates. This paper explain the feature and reason of the change of Korean negative sentences in the 16th century by these methods. The result of this paper is as follow.

Firstly, The types of negative sentences in the 16th century were not different from that in the middle ages. But in detail, there were many different types between the 15th century and the 16th century. Many types disappeared and were founded in the 16th century.

Secondly, the tendency of the long forms advanced faster in 'mot' negative sentences than 'ani' negative sentences. In 'mot' negative sentences, the tendency of the long forms was completed in the first stage of the 16th century.

Thirdly, the tendency of the long form was limited to literatures that was influenced by written language. A few of literatures that excepted against this tendency were influenced by spoken language. For instance, 『Beonyeok-nogeoldae』, 『Beonyeok-baktongsa』, and 『Suncheonkimssiganchal』 didn't follow the tendency. Another literatures that also excepted against this tendency were influenced by a

regional dialect. For instance, 『Iryunhaengsildo』, 『Yeossi-hyangyak』, 『Jeongsok-eonhae』 and 『Childaemanbeob』 didn't follow the tendency.

Finally, in a view of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redicates, derivational verbs that had Sino-Korean root[Sino-Korean root+hada (하다)] raised the tendency of the long forms in negative sentences. Because generally the predicates of this type didn't form the short form in negative sentences, almost negative sentences that had predicate of this type had to form the long form in negative sentences.

박형우

363-791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7번지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화: 043-230-3549, 010-8388-3549

e-mail: phwcgs@knue.ac.kr

이 논문은	2005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5년	11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5년	12월	30일	간행함